



“나라의 위기 때마다 기도했던 교회, 다시 간구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교연 국가조찬기도회가 1일 열렸다. 기도회에 참석한 권성동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한미동맹이라는 세 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다”며 교계 지도자들의 기도를 부탁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국가조찬기도회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 국가조찬기도회가 1일 아침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한국교회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앞으로 매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기도회는 국민의힘 중앙위 기독인 지원특별위원회가 주최했고, 한교연과 사단법인 미래약속포럼이 주관했으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기독인총연합회가 협력기관으로 함께 했다.

최구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가 사회를 본 가운데 송태섭 한교연 대표회장

이 먼저 환영사를 전했다. 송 대표회장은 “우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환경이 위기로 가고 있다”며 “더 이상 방관선 안 되고, 다시 기도하기 위해 이 기도회가 열리게 됐다”고 했다.

송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 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며 “특히 6.25 남침으로 부산까지 밀렸을 때, 당시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나라를 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매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한다. 나라와 대통령, 위정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다.

이후 장상홍 장로(한교연 소통위원장)의 대표기도와 홍정자 목사(한교연 서기)의 성경봉독 후 △국가와 민족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등을 위한 특별기도가 있었다.

이어 조영은 씨(장충단교회 찬양대 솔리스트)가 특별찬양을 했고,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 대표회장)가 ‘지도자의 자

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주님은 끝까지 희생하시며 죄인들을 섬기셨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며 “지도자들이라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많은 지도자가 그저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내 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성도를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교회 리더로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내 편, 내 사람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라며 “그러므로 우리

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을 희생시키셨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회장)이 축도로 모두 마쳤다. 조찬기도는 이영한 장로(한교연 회계)가 했다.



김진영 기자

“중국, 탈북민을 북한 아닌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내야”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 열려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가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월 30일 오후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15개국 51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시작 연설, 격려사, 성토 연설, 강제북송 희생자 호명, 서한 낭독, 구호 제창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김성민 위원장(제19회 북한자유주간 준비위원회)은 시작 연설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외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운동은 2011년부터 워싱턴의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중국 공안에 의해 북송되

고, 북한에 끌려가 박해받는 우리의 형제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고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의 악행을 멈출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자”며 “북한과 중국의 형제자매가 반드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자”고 했다.

이어진 격려사 순서에서 먼저, 수잔 솔티 대표(제19회 북한자유주간 대회장)는 “현재 중국에는 약 600명 정도의 북한 난민이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중국에 아무리 수십억 인구가 있어도 정의롭게 탈북민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

도 없다”며 구호 ‘Let my people go’(내 사람들을 보내라)를 다 같이 외쳤다.

이어 김태훈 변호사(한변 명예회장)는 “금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금 너무 축축하다. 더구나 중국은 유엔 회원국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 있다. 무엇보다도 40년 전 중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난민협약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강제송환 금지”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자처하면서 지금 까지 많은 이들을 강제북송해서 온갖 인권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공범이다. 우리는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비롯해 탈북민 단체장들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당장 중단할 것을



중국대사관에 전달할 서한을 들고 수잔 솔티 대표를 비롯해 한·미·일 대표단이 단체 사진 촬영을 했다. ©장지동 기자

서한에는 “현재까지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북송된 탈북민 수가 수만 명에 달한다는 탈북민들의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탈북민들을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것이 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두 번째로 징검다리 김형수 공동대표가 유럽 탈북민인권단체의 서한을 낭독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고, 유엔 회원국인 중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따라 모든 탈북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최소한 대한민국이나 제3국에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수잔 솔티 대표와 한·미일 대표단이 중국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다. ▶관련기사2,3면 장지동 기자

국회의사당역 도보2분, 여의도의 프리미엄을 생활형숙박시설 라포르테 블랑여의도가 함께 합니다.

여의도에 3억7천만원 투자 !! 최저 월 203만원 수익 !!

주택수, 대출규제, 부동산세 적용안됨!! THE CONNOISSEUR

1600-086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4 (여의도동 15-13)

운영사 홈페이지 : www.theweekandresort.com / www.homes-studio.kr

회사보유
한정물량



시행/시공 **kun young**

위탁/운영 **THE WEEK & HOMES**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CG, 이미지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